

# 프로축구 승격·강등 구단 면면 드러나...PO 오는 6일 개막

수원삼성 강등...강원FC·수원FC 승강 PO형  
김천 승격...부산아이파크·김포FC 1부 도전

프로축구 K리그에서 1부 승격과 2부 강등을 가릴 구단들의 면면이 가려졌다. 수원삼성이 2부로 강등됐고 수원FC와 강원FC가 승강 플레이오프에 나선다. 2부에서는 김천상무가 승격을 확정했고 부산아이파크와 김포FC가 1부 승격에 도전한다.

2일 열린 K리그1 파이널B 세 경기 결과 자동 강등팀이 가려졌다. 수원이 강원FC와 득점 없이 비기면서 자동 강등 순위 최하위 12위가 됐다. 강원은 10위를 확정하며 다이렉트 강등을 피했다.

강등이 유력했던 수원FC는 제주유나이티드와 1-1로 비겨 리그 11위에 올랐다. 경기 막판 제주의 솟이 골대에 맞는 등 운이 따랐다. 수원 FC는 승점은 33점으로 수원과 같았지만 다득점에서 앞서 강등을 피했다.

2부 리그에서는 일찌감치 1위를 확정된 김천이 1부로 자동 승격했고 이날 승강 플레이오프에 나선 팀들이 부산아이파크와 김포FC로 확정됐다.

이날 열린 김포와 경남FC 간 플레이오프에서 김포가 2-1로 승리했다. 비기지만 해도 승강 플레이오프에 오를 수 있었던 김포는 경남 미드필더 설현진의 퇴장 등 호재에 힘입어 승리하며 수월하게 2부 경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강등과 승격을 두고 사투를 벌여지는 승강 플레이오프는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

강원은 오는 6일 김포솔터축구장에서 김포와 1차전을 치른 뒤 9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2차전을 치른다.

수원FC는 6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부산과 1차전을, 9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2차전을 가질 예정이다.



2부 리그 강등이 확정된 수원삼성 선수들이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38라운드 수원삼성 블루윙즈와 강원FC의 경기 종료 후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 경기에서 이긴 팀들은 내년 1부 리그에서, 패한 팀들은 2부 리그에서 뛰는

## 올해 사령탑만 4명...프로축구 '명가' 수원의 예견된 몰락



2일 경기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수원삼성 블루윙즈 대 강원FC의 경기, 무승부를 기록하며 2부리그 강등이 확정된 수원삼성 경기 감독대행이 아쉬워하고 있다.

구단 창단 첫 2부리그 강등 수도  
투자 줄면서 선수단 경쟁력 없어

프로축구 '명가' 수원 삼성이 창단 첫 2부리그로 강등됐다. 올해만 4명의 사령탑이 지휘봉을 잡으며 혼돈의 시간을 보낸 수원의 예견된 몰락이다.

수원은 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최종 38라운드 홈 경기에서 강원FC와 0-0으로 비겼다.

이로써 최하위(승점 33)가 확정된 수원은 K리그2(2부리그)로 다이렉트 강등됐다.

1995년 창단해 1996년부터 K리그에 나선 수원은 승강제 도입 후 처음 2부리그 강등이란 수모를 당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을 등에 업은 수원은 K리그에서 4회(1998, 1999, 2004, 2008년), 대한축구협회(FA)컵 5회(2002, 2009, 2010, 2016, 2019년) 우승한 명가다.

또 K리그에서 가장 열정적인 팬들을 거느린 인기 구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원의 몰락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지적도 있다. 모기업의 지원이 줄면서 선수 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뒤늦게 돈을 써도 제대로 된 영입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14~2015년 연속 리그 2위에 올랐던 수원은 2019년 8위로 추락하더니, 2020년 8위, 2021년 6위, 2022년 10위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K리그1 10위에 그쳐 2013년 승강제 도입 후 처음으로 승강 플레이오프(PO)를 치렀고, FC안양과 1, 2차전에서 합계 스코어 2-1로 앞서 겨우 강등을 면했다.

명가의 자존심을 구긴 수원은 올 시즌을 앞두고 명예 회복을 다짐했다.

수원의 잔류를 이끈 이병근 감독 체제에서 베테랑 김보경과 안양에서 뛴 아코스티와 김경중, 브라질 미드필더 바사니 등을 영입해 스킴을 보강했다.

하지만 출발부터 불안했다. 시즌 초반부터 성적이 곤두박질쳤고, 이병근 감독이 물러난 뒤 최성용 코치에게 대행 맡겼지만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다급해진 수원은 소방수를 찾아 나섰지만, 선 듯 지휘봉을 잡으려는 지도자가 없었다.

결국 강원을 이길까 야인 생활을 하던 김병수 감독에게 여러 차례 러브콜을 보낸 끝에 새 감독을 선임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김병수 감독도 수원의 구세주는 아니었다. 올해 5월 팀을 맡아 12라운드부터 31라운드까지 20경기를 치러 4승5무11패의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고 9월 말 경질됐다.

강등이 현실로 다가온 수원의 마지막 승부

수는 구단의 레전드이자 플레이 코치로 활동하다 최근 코치 역할에 집중해 온 염기훈의 감독대행 선임이었다.

염 대행은 분위기 쇄신을 위해 주장단을 교체하고 지원스태프 역할을 조정하는 등 변화를 꾀하며 시즌 막바지 잔류 희망을 살렸다.

수원FC를 3-2로 눌렀고, FC서울과 슈퍼매치에서 1-0 승리로 2연승을 달렸다.

그러나 최종전에서 강원을 이기지 못하면서 실낱같은 잔류 희망은 사라졌다.

올해만 4명의 사령탑을 거친 수원은 시즌 내내 방황하다 강등됐다. 구단 운영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선수단은 경쟁력은 잃었고, 결국 사상 첫 2부 추락이란 망신을 당했다.

염 대행은 "경기장에서 뛰는 건 선수들인데,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 혼란스러웠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이 선수들에게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뉴스

한층 치열해진 올스타 투표...아시아 쿼터로 판도 변화?

올스타전, 내년 1월27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프로배구 V-리그 아시아쿼터 도입으로 아시아 출신 선수들이 합류한 가운데 올스타 투표 판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배구연맹은 내년 1월27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도드람 올스타 투표'에 출전할 선수들을 뽑기 위해 온라인 팬 투표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직전 시즌 최종 성적을 기준으로 K-스타(1·3·5위)와 V-스타(2·4·6·7위)로 팀을 나눈다.

K-스타팀은 남자부 대한항공, 한국전력, OK금융그룹과 여자부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 GS칼텍스로 구성된다.

V-스타팀은 남자부 현대캐피탈, 우리카드, KB손해보험, 삼성화재와 여자부 흥국생명, 정관장, IBK기업은행, 페퍼저축은행으로 꾸려진다.

투표 대상은 2라운드 종료 기준 팀 경기 수 절반 이상 3세트 이상 출전한 선수다. 남녀 총 28명이 뽑힌다.

투표를 통해 각 팀당 세트 1명, 리베로(전문 수비수) 1명, 미들블로커(중앙 공격수) 2명, 아포짓 스파이크(오른쪽 공격수)와 아웃사이드 히터(왼쪽 공격수)를 합친 공격수 3명으로 구성된다.

올해부터 도입된 아시아쿼터 제도로 아시아 출신들이 얼마나 올스타로 뽑힐지 주목된다. 배구연맹은 홍보 포스터에 게드파르드 폰펀(IBK기업은행)과 메가(정관장) 등 스타 선수들을 포함시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1계절당 1일 1회, 동일 구단 선수는 최대 3명까지 투표 가능하다. 오는 5일 오후 3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개인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한국배구연맹 공식 누리집(kovo.co.kr)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한 팬들에게는 주점을 통해 타이틀스폰서인 도드람양돈농협의 선물세트를 비롯해 공식공급업체인 미즈노 의류, 미카사 볼, 포카리스웨트 스포츠용품 등 선물이 증정된다.

## 한층 치열해진 올스타 투표...아시아 쿼터로 판도 변화?

올스타전, 내년 1월27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프로배구 V-리그 아시아쿼터 도입으로 아시아 출신 선수들이 합류한 가운데 올스타 투표 판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배구연맹은 내년 1월27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도드람 올스타 투표'에 출전할 선수들을 뽑기 위해 온라인 팬 투표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직전 시즌 최종 성적을 기준으로 K-스타(1·3·5위)와 V-스타(2·4·6·7위)로 팀을 나눈다.

K-스타팀은 남자부 대한항공, 한국전력, OK금융그룹과 여자부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 GS칼텍스로 구성된다.

V-스타팀은 남자부 현대캐피탈, 우리카드, KB손해보험, 삼성화재와 여자부 흥국생명, 정관장, IBK기업은행, 페퍼저축은행으로 꾸려진다.

투표 대상은 2라운드 종료 기준 팀 경기 수 절반 이상 3세트 이상 출전한 선수다. 남녀 총 28명이 뽑힌다.

투표를 통해 각 팀당 세트 1명, 리베로(전문 수비수) 1명, 미들블로커(중앙 공격수) 2명, 아포짓 스파이크(오른쪽 공격수)와 아웃사이드 히터(왼쪽 공격수)를 합친 공격수 3명으로 구성된다.

올해부터 도입된 아시아쿼터 제도로 아시아 출신들이 얼마나 올스타로 뽑힐지 주목된다. 배구연맹은 홍보 포스터에 게드파르드 폰펀(IBK기업은행)과 메가(정관장) 등 스타 선수들을 포함시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1계절당 1일 1회, 동일 구단 선수는 최대 3명까지 투표 가능하다. 오는 5일 오후 3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개인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한국배구연맹 공식 누리집(kovo.co.kr)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한 팬들에게는 주점을 통해 타이틀스폰서인 도드람양돈농협의 선물세트를 비롯해 공식공급업체인 미즈노 의류, 미카사 볼, 포카리스웨트 스포츠용품 등 선물이 증정된다.

## '국가대표 자격 잠정 박탈' 황의조, 햄스트링 부상 이탈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노리치 시티)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난다.

노리치는 3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영국 브리스톨의 에슈턴 게이트 스타디움에서 브리스톨 시티와 2023-2024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 리그) 19라운드 원정 경기에 나선다.

현재 7승2무9패(승점 23)로 리그 14위인 노리치는 13일인 브리스톨을 꺾고 중상위권 도약을 꾀한다.

하지만 온전한 전력을 구축할 수 없다. 최근 2경기 연속골을 넣었던 공격수 황의조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졌기 때문이다.

황의조는 직전 경기였던 왓포드전에서 2-0으로 앞선 전반 17분 부상이 의심돼 애슬리 반스와 교체됐다. 데이비드 와그너 감독을 통해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와그너 감독은 "올해가 가기 전에 복귀하길 바란다. 앞으로 2-3주간 황의조가 어떻게 회복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장기 부상을 예고했다.



황의조는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고 있다. 그는 현재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8일 윤리위원회, 공정위원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논의 기구를 꾸려 당분간 황의조를 국가대표에 발탁하지 않기로 했다.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하면 내년 1월12일 카타르에서 개막하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나설 수 없게 된 황의조는 이번 부상으로 경기력 유지까지 난항을 겪으며 아시안컵 출전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 항저우AG 유도 은메달 이준환, 일본서 숲 목에 걸었다

도쿄 그랜드슬램 세계 2위 꺾고 우승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에 만족했던 이준환(용인대)이 일본에서 열린 국제 대회를 통해 한을 풀었다.

이준환은 지난 2일(한국시간) 일본 도쿄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린 '2023 도쿄 그랜드슬램 유도 대회' 남자 81kg급 결승에서 마티아스 카세(벨기에)를 꺾고 금메달을 땀다.

남자 81kg급 세계 4위인 이준환은 준결승에

서 5위 프랑수아 고티에 드라포(캐나다)를 빗겨가치기 절반승으로 눌렀다. 결승에서는 세계 2위인 카세를 상대로 안뒤축걸기로 절반을 따내 우승했다.

이로써 이준환은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에 머문 아쉬움을 털어냈다. 그는 지난 9월25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81kg급 결승에서 세계 8위 소문 마흐마드베코프(타지키스탄)에 절반패해 준우승했다.

한국 남자 유도 간판으로 떠오른 이준환은 이번 대회를 통해 내년 파리올림픽 금메달 전

망을 밝혔다.

여자 무제한급 박샛별(용인대)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러시아 출신 엘리스 스타르체바에 반칙승을 거두고 동메달을 땀다.

남자 90kg급 곽동환(포항시청)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러시아 출신 미하일 이골니코프에 허벅다리걸기 한판패를 당해 동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다. 남자 73kg급 이은결(용인대)도 동메달 결정전에서 조르지 테라슈빌리(조지아)에 허벅다리걸기 절반패를 당해 동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 FA 최대어 오타니, 협상 막바지 단계...다저스 선두 주자

메이저리그(MLB)에서 투타를 겸업하는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29)의 프리에이전트(FA)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언론 스포츠넷은 3일(한국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오타니와 몇몇 구단의 협상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몇몇 팀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이번 주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오타니와 그의 에이전트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협상에 입할 구단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타니는 LA 다저스가 가장 선두 주자로 꼽히고,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시카고 컵스

도 여전히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오타니가 6시즌 동안 몸 담은 LA 에인절스도 여전히 후보로 남아있다.

반면 영입전에서 철수한 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SPN의 제프 파산 기사는 지난 2일 "텍사스 레인저스, 뉴욕 메츠, 보스턴 레드삭스는 오타니 영입전에서 철수하고 다른 선수들에게 관심을 돌렸다"고 전했다.

오타니는 빅리그 사상 최초로 5억달러(약 6495억) 이상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